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86)(8/18/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9 장 영생을 사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약속된 지극히 큰 상을 바라봄, 4-5 절

수 1:7 -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엡 4:24 -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롬 7:20-21, 24 -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 8:4 -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느니라

4. 너는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연단을 받아야 한다. 너에게는 이따금씩 위로가 주어질 것이지만, 네 영혼이 만족할 만한 차고 넘치는 온전한 위로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을 행할 때에나 감내하여야 할 때에 강건하고 담대하라(수 1:7).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되어서(엡 4:24),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삼상 10:6). 대체로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행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은 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네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 형통하지만, 네가 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잘 듣지만, 네가 하는 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무시해 버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면 응답을 받지만, 너는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칭송을 받고 명성을 얻지만, 너에 관한 얘기는 아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이 맡겨지지만, 너는 쓸모없는 자로 취급받을 것이다.

5.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너의 본성은 자주 괴로움과 슬픔에 빠지게 되겠지만, 그러한 괴로움과 슬픔을 묵묵히 참고 견디다면, 네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이 자신을 어디까지 부인할 수 있고,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나 그 비슷한 일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보고 있거나 직접 겪어야 하는 경우보다, 네가 네 자신에 대하여 죽을 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때는 없다. 특히, 네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나 너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서 아무짝에도 쓸데없을 것 같은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너는 네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네가 권세 아래 있는 처지여서, 감히 권세에 대항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강제로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네 자신의 뜻을 완전히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기가 더더욱 어렵고 힘들며 괴로워 보이게 된다.

말씀과 해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만족도 얻지만, 그와 함께 견디기 쉽지 않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것은 (1)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일 수 있다. 바울은 롬 7:20-21 에서,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말하면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갈등을 토로했다. 그렇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정욕으로 인하여 내적 갈등과 번민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그러한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 **롬 8:1-2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내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 놓고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 못박아야 한다. 내 안에 나의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속에서 내적인 갈등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은 바울은 갈 2:20 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다. 바울은 자신을 영적으로 매일 같이 죽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내적 갈등의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2)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역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어떨 때는 나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과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잘못되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다. 우리는 신앙 생활 중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가끔씩, 어떨 때에는 자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 기본적으로 나의 육신적 유익과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선택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 얻을 나의 육신적인 유익과 정욕의 만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원래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앞에는 평탄한 길과 푸른 풀밭과 꽃길도 펼쳐지지만, 광야 길도 나온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광야 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왜 광야 길이 나오냐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광야를 걷게 하신 후에 다시 오아시스를 모아놓은 것 같은 길도 걷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속에서 육신적인 형통과 복을 누릴 때에는 그것대로 감사해야 하고, 설사 이유를 알 수 없는 각종 부정적인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 **신 8:4 -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느니라. 롬 8:18 -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 경험하는 다양한 내적 갈등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김기대 선교사님, 오만 김데이비드 선교사님, 몽골 김봉춘 선교사님, 터키 김흥기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3. 교회 외에도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세워주신 다양한 기독교 기관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군선교, 병원선교, 교도소 선교, 그리고 학원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